

지역 소식통

도시재생 · 청년창업 주제 정읍시 '청년 해커톤' 개최

정읍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2020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황토현 권역어울림센터에서 무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이다.

이번 대회는 '도시재생과 청년창업'이라는 주제로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제안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희망자는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전보과화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참고해 이메일(jongupur@naver.com)로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영양플러스사업 9~13일 신규대상자 모집

부안군은 관내 영양 위험이 있는 임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해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이와 엄마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13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관내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유아로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로 방문 날짜를 우선 예약하여 예약하신 날짜에 방문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장소는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위기가정 발굴 앞장선다

정읍시, 12월 말까지 재산 기준 등 한시적 기준 완화 겨울철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이·통장 등과 협력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다.

시는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1억1,800만 원에서 2억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위기 사유일 경우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이거나 재산이 2억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정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기준), 연료비 월 9만8천원, 의료비 1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1,486세대에 8억4천만 원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2억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억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복지 봉신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발굴된 위기가정에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농산물 쇼핑, 이젠 안방에서 '클릭'

스마트스토어 '고창다움' 개설 10개 농가, 10여개 제품 판매

고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농특산물의 오프라인 판매량이 위축됨에 따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고창군은 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에 '고창다움(<https://smartstore.naver.com/gochang2020>)' 통합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창팥몬, 발효식초, 고들빼기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10개 농가, 10여개 제품을 등록·판매한다.

네이버 판매채널인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이다. 뛰어난 이용자 접근성과 낮은 수수료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어 참여 농가 소득 증대와 군 농특산물 상품의 공신력 강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스마트스토어 개설로 '고창군 온라인 통합 쇼핑몰' 구축을 위한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기 침체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포착해 삼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다양한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경관위원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경관위원회 위원장인 농수축산경제국장 경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고창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관위원회에서는 고창군 경관계획안제에 대해 ▲고창군 경관계획 추진상황 ▲경관현황 분석 ▲경관기본구상과 경관기본계획 ▲실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번 고창군 경관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공고하고 각종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위해 '고창군 경관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착수보고회, 전문가



고창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경관위원회 위원장인 농수축산경제국장, 경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고창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경관

계획에 충실히 반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 조성과 야간 불거리 제공을 위해 샘골다리에 총 3억원을 들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정읍천 샘골다리, 야경 명소 '달바꿈'

총 3억원 들여 야간경관 조성

시민들의 최대 휴식처인 정읍천에 세워진 샘골다리가 최근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마치고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는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 조성 과 야간 불거리 제공을 위해 샘골다리에 총 3억원을 들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명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점등해 오후 11시까지 이어지며, 새벽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점등된다.

이번 야간조명은 '물과 빛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정읍'의 부흥을 꿈꾸며 아름다운 영원의 빛을 담았다.

또 빛 공해와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정읍천 환경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시공했다.

시는 이번 야간경관 조성으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은 물론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아름답고 멋진 야경

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산책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장산 등 외곽의 관광객들을 시가지로 유도함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시민들이 달빛과 물빛을 벗삼아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샘골다리가 아름다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샘골다리는 벚꽃축제와 단풍축제, 기념제 등 다양한 축제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치형 교각과 석재 기둥을 사용한 난간 등 그리스 신전을 연상케한다.

특히, 아름다운 교량의 모습과 친환 경적으로 조성된 정읍천의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샘골다리 주변에 갖가지 야생화가 피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대학 수료식... 99명 졸업 '결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2차 1강의실에서 각 과정별 수료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풍미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 7개월간의 과정별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99명의 수강생이 졸업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단풍미인대학은 정읍농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소양과 능력을 갖춘 핵심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장기교육이다.

6차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경영 마케팅과 가공 체험 등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

행했다.

올해 단풍미인대학 성적 우수 수료자로 정명성(수성동)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은 조기만(고부면), 최상득(신정동), 노광섭(고부면)씨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3기수 900여 명의 단풍미인대학 수료생을 배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